

건축문화대상에 대한 단상

Essay for '2017 Korean Architecture Award(KAA)'

글. 임형남 · 본지 편집위원

아카데미상, 노벨상, 그래미상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단연 프리츠크 상이겠죠. 이웃 일본에서는 여섯 번이나 수상했고 우리보다 조금 뒤진다고 생각했던 중국 건축계에서도 수상자를 냈으니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것이 그런 상을 받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상을 받으려고 인간힘을 쓴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여건이 만들어지고 건축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프리츠크 상의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상을 받기위해 인간힘을 쓰기보다는 눈을 사회로 돌리고 보다 더 윤리적이고 성숙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내외로 다양한 건축상이 생겨났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일생의 영광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무척 신중하게 선정하여야하며, 받는 사람도 그 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훌쩍 화장지보다 더 권위가 가벼워진 상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상을 하나의 이력으로 보고 그 작업의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수상작이 선정되거나, 수상작의 개수를 늘여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되어버리는 경우 등입니다. 간혹 무척 역사가 깊은 상들이 그렇게 되어서 무척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26회를 맞이하는 건축문화대상에 수상작이 정해졌습니다. 무척 더웠던 이번 여름 동안 출품된 많은 준공작품들을 둘러보고 심사숙고 끝에 수상작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훌륭한 건축물들을 세운 수상건축사들에게도 찬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저는 재작년 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후배 건축사들과 같이 보낸 일주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걸 충분히 덮을 정도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은 작년에 작고하신 원도시건축의 변용 건축사님이었습니다. 건축계 대선배이시며 한국 현대건축의 산증인이었던 변용 건축사님을 뵈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처럼 무척 따스하게 대해주었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물론 건축이란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자료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정리하여 건축물로 만드는 것은 건축사의 경험과 주관적이며 미적인 판단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사정이나 사용자의 독특한 요구조건이 배합되면 단시간에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경험이 많은 분이 필요합니다. 심사위원장이었던 변용 건축사님은 본인의 많은 경험을 내세우면서도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선 채 조용하면서도 적당히 조정해가며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행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심사를 했다기보다는 좋은 건축 수업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격론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고 우리의 건축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상한 건축물 또한 재작년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진일보했으며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작업들이 우리끼리만 찬사를 보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